

방귀쟁이 며느리

The Gassy Lady
&
Daughter-in-law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 소리가 유난히 큰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집은 가난했지만 처녀의 방귀소리가 너무 커서 온 마을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방귀쟁이 처녀: (뽕뽕!) 아니, 어쩌서 내 방귀 소리만 이렇게 큰 것일까 (뽕뽕!)

아버지: 애야, 방금 그 소리가 너의 방귀 소리였느냐?

방귀쟁이 처녀: 네, 아버지. 너무 시끄러우시죠? 죄송해요..

그러나 처녀가 살고 있는 윗 마을에도 방귀소리가 엄청나게 큰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삼식이라고 불렸으며 덩치는 작았지만 방귀 소리는 요란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남자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과 처녀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기 마을의 사람이 방귀소리가 크다고 내기를 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 1: 어이, 저쪽 윗 마을에 방귀쟁이 처녀가 산다는 얘기 들었는가?

마을 사람 2: 방귀쟁이 처녀? 그럼 우리 마을에 삼식이 총각이랑 내기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마을 사람 1: 그것도 재미있겠구만. 당연히 삼식이가 이기겠지? 하하하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방귀쟁이 삼식이가 이 처녀에게 대결을 하자고 전해왔습니다. 처녀는 부끄러워 한사코 거절했지만, 오기가 생긴 삼식이는 가난했던 처녀 집의 빗을 다 갚아주고, 자신의 텃밭까지 내주겠다고 대결을 청했습니다. 차마 거절하지 못한 방귀쟁이

처녀는 그 대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두 마을 사람들의 관심 속에 두 사람의 방귀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 1: 오늘 드디어 방귀쟁이 처녀와 삼식이의 방귀 대결이 있는 날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두 사람의 대결을 보시면 됩니다.

삼식: 저는 준비됐으니 어서 시작하시죠

마을 사람 1: 삼식이 총각은 벌써 준비가 되었답니다. 곧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귀쟁이 처녀: 저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마을 사람 1: 자 그럼 대결을 시작합니다

삼식: 뽕~~~~뽕뽕뽕

방귀쟁이 처녀: 뽕뽕~~~~뽕뽕뽕

두 사람의 방귀소리는 모두가 놀랄 정도로 컸습니다. 방귀 소리로 솔뚜껑과 솔까지 날려버린 방귀쟁이 처녀가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대결에서 이긴 처녀는 빗도 다 갠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 마을에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총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안타까워하던 방귀쟁이 처녀의 아버지는 처녀의 방귀 소문이 닿지 않는 먼 마을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한편, 먼 마을로 시집을 간 그녀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귀쟁이 처녀에게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오랫동안 방귀를 참았더니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떡하지..

시아버지: 얘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방귀쟁이 며느리: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님.

하지만 방귀를 끼지 못하고 오래 참을수록 며느리의 얼굴을 노랗게 변해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아버지가 여러 번 이유를 물었지만, 며느리는 부끄러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방귀를 참지못하게 되자 방귀쟁이 처녀는 가족들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서방님 그리고 아버님,어머님. 제 얼굴이 노랗게 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아버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나?

방귀쟁이 며느리: 사실을 방귀를 끼지 못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 방귀? 호호호. 괜찮으니 이제부터 편히 방귀를 끼거라.

방귀쟁이 며느리: 뽕~~~~뽕뽕

방귀쟁이 며느리의 방귀 소리는 마치 집을 떠나갈 듯 했고, 그 냄새 또한 매우 역했습니다.

며느리의 방귀 소리에 놀란 시아버지는 몰래 며느리를 친정집에 놓고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중, 길 언덕에 큰 배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한 시아버지가 목이 마르다며 배를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한참을 걸었더니 목이 마르구나..

방귀쟁이 며느리: 그럼 아버님 저기 저 배나무에서 배를 따서 드릴까요?

시아버지: 아니, 네가 어떻게 배를 따 온 다는 것이냐?

방귀쟁이 며느리가 배나무 앞에서 방귀를 끼자마자 큰 배가 우르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지나가는 과일장수가 비싼 값을 내며 그 배들을 사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방귀소리가 부담스럽기만 했던 시아버지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 “며느리의 방귀도 쓸 만한 곳이 많이 있군 그래”

방귀쟁이 며느리: 아버님, 이 배를 드셔보세요. 아주 잘 익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던 길을 돌려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따러 가자며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과수원으로 갔습니다. 과수원에 도착한 며느리는 배나무 앞으로 다가가 방귀를 끼었고, 많은 배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배 수확철이 되면, 그 과수원에서는 방귀쟁이 처녀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 단어를 알아봅시다!

방귀 (fart)	유난히 (unusually, uncommonly)	가난하다 (poor, needy)	덩치가 작은 (small sized, short)	
요란하다 (uproarious)	자자하다 (be widely spread)	내기하다 (bet, gamble)	한사코 거절하다 (refuse positively)	
시합 (contest)	빚 (debt)	갚다 (pay back, repay)	텃밭 (vegetable garden)	솔뚜껑 (pot lid)
안타까워하다 (feel pity for)	참다 (stand, bear)	부끄럽다 (shy)	고백하다 (confess)	역하다 (sickening, disgusting)
배나무 (pear tree)	따다 (pick)	과일장수 (fruit seller)	익다 (become ripe)	과수원 (orchard)
수확철 (harvest season)	해마다 (every year, yearly)			

◇ 생각해 봅시다!

1. 방귀쟁이 며느리와 삼식이는 왜 방귀 대결을 했습니까?
2. 방귀쟁이 며느리는 결혼을 한 뒤, 왜 방귀를 참았을까요?
3. 방귀쟁이 며느리의 방귀는 어땠습니까?
4. 만약 여러분이 ‘시아버지’였다면 방귀쟁이 며느리를 집에 다시 데려왔을까요?
5. 여러분은 어떤 약점 (weakness)이 있습니까?